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5호 [루체 제25133호] 주제 104(2015)년 12월 21일(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시 상점의 전초병원 긍지를 안고 오랜 기간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군 시대 모범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는 은чин군 신창 협동농장 노동장 강성번, 단천시 풍향협동농장 작업반장 최승우, 무산광산련합기업소로 천문광산 기술과장 장철영, 덕현시계금교양관 학술원 안동원, 평양건축종합대학 사회과학과 교원 리은희, 탐험군당학교 강좌장 리용수 등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학습강사로 활동하면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위해 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투신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유훈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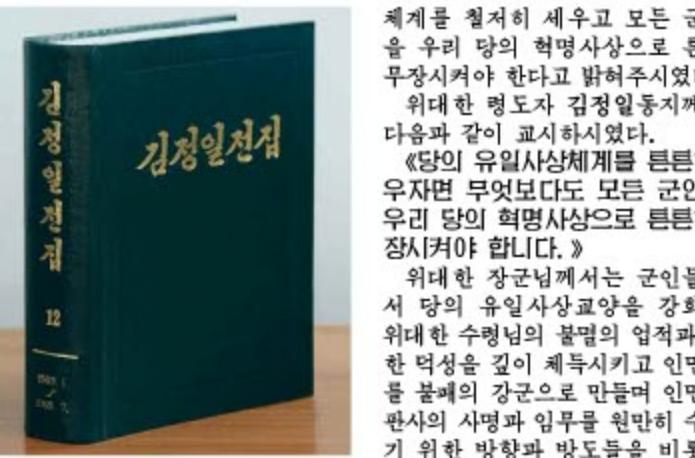
백두산철세워인들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 교양자료, 주제사상, 선군사상학습자료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양자료와 상식자료들을 잘 갖추어놓고 실천과 결부하여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강의를 참신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를 높이고 있다.

《우리 학습강사》는 능력있는 학습강사로 불리우고 있는 그들은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힘 있게 벌여 많은 혁신자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하였다.

분에 넘치게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온 학습강사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워업, 선군혁명워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대중의 훌륭한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각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네에 순서로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58(196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표하신 95건의 고전적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로작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교양사업을 새로

운 놓으니 일과나고다록 평도하시며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강화, 문학에 술혁명에서 전환적 국면을 염려 놓으니 일과나고다록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대 대하여》, 《조선인민출판사원내 담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대 대하여》, 《사상사업을 힘 있게 벌여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대 대하여》, 《유일사상체계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에서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

기관의 역할을 높여 당의 유일사상을 지향하는 새롭게 진보적인 민족주의를 펼쳐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인민사랑의 정치》

방글라데슈에서 도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에서 도서 『김정은, 인민사랑의 정치』를 출판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 하시고 그들은 조선인민의 정신을 담아 도서를 발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정은각하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함께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칭송의 현실에 대한 존경과 함께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창시하신 혁명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그 수령에 대한 존경과 함께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후승리를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길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 파시

백두산 영웅청년 3호발전소 가물막이공사

결속, 전반적인 대상공사 본격적으로 추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탐보를 모르고 악동하는 생활과 함께 넘쳐 즐기자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담을 때마다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축에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

침착과 함께 떠올길 담대한 배짱과 기상안고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들 투쟁대원들의</p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을 키우신 희세의 선군령장



↑ 최전연에 위치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7(1998)년 11월
주체 89(2000)년 11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94(2005)년 5월



작전지휘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66(1977)년 5월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95(2006)년 4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5(1996)년 12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8(1999)년 2월



동해안 최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일선방어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6(1997)년 11월



조선인민군 해군부대 전투함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4(1995)년 2월



땅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70(1981)년 12월

국산화에 경제강국에로의 지름길이 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현대화를 우리식의 본보기로 창조한 경험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현대화가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되어 영양학적,衛生학적으로 당보된 맛있는 식료품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공장에서 새로 개발된 어린이식료품의 가지수나 질적비율을 본하기 앞서 우리 식 현대화가 가지는 의미는 힘점을 두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가 정말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설비현대화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일때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이라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식으로 해내려는 입장과 판점을 기록처럼 세우고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주고싶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적극 참여한 일군

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재자,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의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실현한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비행기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게 될 가슴벅찬 시대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현대화의 증액은 국산화이라는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두렷이 실증해주었으며 국산화에 경제강국으로의 지름길이 있다는 절의 진리를 일군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다.

그들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벅胀함을 금할수 없었고 우리 과학자들의 창조적 두뇌를 믿고, 방대한 설비국산화를 결심한 것이 얼마나 읊었는가를 짚감하였다.

그러나 공정설비들을 검토해보는 과정에 일군들은 꼭 수입해야 하는 항목에 올라 있는 설비들에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생산공정의 설비들은 전반적으로 국산화 할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설립비용, 분석설비를 비롯한 일부 설비들은 수입해야만 하는가, 물론 그 하나하나가 침단기술을 요구하는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우리도 못한다는 법이어야 없지 않은가. 이것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뿐이지 들어내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일군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모든 공정들에서 설계체계검토작업이 벌어졌다.

일부 사람들이 우망만으로는 안된다며 내놓고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더우기 창간 70돐까지 기념일로 긴박한데 송산없이 일관을 벌려놓았다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론조도 유태나왔다.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둘의로 과학자들은 대 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기대였다.

이것이 과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현대화에 동원된 과학자들도 모두가 수입병을 불사르는 사상전의 기수가 되고 전초병이 된 정신에서 설비의 국산화실현을 위한 설계전투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중요생산공정의 하나인 풍선젖생산공정을 맡아 원료투입으로부터 가공, 제작을 하며, 품질을 확보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과학자들은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는 경우만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풍선공장 설비들은 그 자체로 힘든 조건에서 보통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예상이다.

처음 공장의 현대화방안을 놓고 협의가 벌어졌을 때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현대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술력, 자재력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타산을 암시하면서 쉽게 수입을 결정하고 있다.

하나면 국산화실현을 결코 실무적인 문제로만 대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에 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업을 받아온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달려나온 해당 부문 일군들도 설비문제를 안고 모색하였다.

모든 생산공정의 무인화, 무진화와 함께 무인화를 전제로 하는 식료공업의 현대화는 발전된 기계제작업체와 여러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안방침되어야 하는것으로 하여 다른 부문의 공장현대화에 비해 많은 품과 자금이 드는것으로 되여있다.

처음 공장의 현대화방안을 놓고 협의가 벌어졌을 때는 한글수정방법을 적용해보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국산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술력, 자재력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타산을 암시하면서 쉽게 수입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현대화를 책임진 일군들은 생각을 깊이 하였다. 원료, 자재뿐 아니라 설비도 국산화하라는 것은 당정책이다. 현대화를 할 때마다 이 구실, 저 구실을 내면서 남의 것을 들어온다면 언제 가도 수입병에 종사하는 청탁과 같은 책임을 물고 싶지 않았다.

김정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조경기계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제작기지, 리파드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입할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 가고 있다.

— 안주 철연 공장에서 —

본사기자 한광명 쪽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 가고 있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실

